

명장 만나고 제철소도 체험... 전남 기술인재 키운다

도,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국내 과정 운영 8월 독일 우수기업 탐방 통해 실무역량 강화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기술인재 육성에 나섰다.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직업계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6년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국내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산업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설계와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미래 기술인으로서의 역량과 직업관 함양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현장 체험과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한민국 명장 특강을 통해 전문기술인의 비전과 장인정신을 배우고,

포스코 홍보관과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첨단 철강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또 광양 강도 전수교육관에서는 전통 장도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장인정신의 가치와 기술인의 자세를 익혔다.

둘째 날에는 커뮤케이션 능력과 협업 기술, 진로 설계 등을 주제로 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분석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협업 능력과 직장 적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연수에 이어 오는 8월에는 독일 현지에서 8일간 국외연수도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독일 우수기업의 제조공정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직업계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6년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국내 과정을 운영했다.

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마이스터와 전문기술인들과 교류하며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과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영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국내연수가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인정신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바이옌진흥원은 최근 완도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서 '2026년 청년 블루푸드테크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블루푸드테크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 해양자원 활용 창업아이디어 발굴 전남바이옌진흥원, 블루푸드테크 아이템 경진대회 성료

전남바이옌진흥원은 최근 완도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서 '2026년 청년 블루푸드테크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블루푸드테크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6년 청년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완도군 해양바이오와 블루푸드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가의 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됐다.

평가위원들은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인, 우수상 1인, 장려상 1인 등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3000만원, 우수상 2000만원, 장려상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경진대회에는 부트캠프 교육 수료율 80% 이상을 충족한 예비창업자 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완도산 해조류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시니어 메디푸드, 유아용 식품, 친환경 소재, 업사이클링 사료, 해양바이오 소재 응용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선보였다.

경진대회에는 교육 수료율 80% 이상을 충족한 참가자들이 출품해 블루푸드, 해양바이오,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발표했다.

전남바이옌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질형 창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블루푸드테크 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해 완도군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지원사업은 완도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재)전남바이옌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상업경진대회 성료... AI 창업 페스티벌 '성황'

전국대회 출전권 놓고 경쟁 진로·취업컨설팅 등 호응

2026학년도 전남상업경진대회가 도내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겨루는 무대이자 AI 기반 진로·취업 체험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천효산고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학생과 교사, 중학생,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해 미래 상업·정보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순천효산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전남상업경진대회'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참가 학생들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프로그래밍, 경제골든벨, 경리실무 등 1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올해 대회는 '순천효산고 with AI 진로

탐색 창업·취업활동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에는 도내 우수기업과 유관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 30여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됐다.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600여명과 학부모모듬도 참여해 특성화고 교육과 진로·취업 정보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스에서는 AI 창업 진단, VR 체험, 캐릭터 드로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로·취업 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올해 전남상업경진대회는 생성형 AI 활용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

은 도전들이 돋보였다"며 "그동안 흘린 땀과 도전 정신이 전남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오는 8월 말 광주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영광군,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복지 접근성 강화·맞춤형 지원 연계 확대

영광군은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소 운영은 지역 내 주민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복지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최근 군서면 보라경로당을 방문한 뒤 기초생활보장, 통합돌봄,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주민 개개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건강상담과 협암 검진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복지·건강을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현장



영광군은 최근 군서면 보라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사진제공=영광군청

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복지현장 상

담소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정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김광호(여수시청 도로교통국장)·박현주(전남도청 주무관) 씨 딸 수연(비기닝뮤직댄스아카데미 원장) 양, 김태연·박금남씨 아들 도영군=21일(일) 낮 12시 메리포엠 B1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제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클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 국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5월 1일)

- | | | |
|---|---|--|
| <p>48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라</p> <p>60년생 한 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라</p> <p>72년생 일에 진척을 실패해 천천히 진행하라</p> <p>84년생 마음만 부풀었지 실제 실속 없는 날</p> <p>96년생 손실이 있었지만 걱정은 하지 마라</p> | <p>49년생 형평성 중시해야 현명하게 판단한다</p> <p>61년생 표준과 전통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p> <p>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분다</p> <p>85년생 정신적 피곤함 주의</p> <p>97년생 한 사람에게 전념하는 것이 좋으리</p> | <p>50년생 근원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p> <p>62년생 동쪽에서 오는 사람은 귀인이다</p> <p>74년생 이성을 곁에 두지 말아라</p> <p>86년생 가까운 지인과 돈 거래 하지말라</p> <p>98년생 떨어지지 않으려면 줄을 붙잡아라</p> |
| <p>51년생 숙된 사업이 드디어 해결되리라</p> <p>63년생 배신이나 사기 당하게 되니 주의하라</p> <p>75년생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p> <p>87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p> <p>99년생 위기는 귀인을 만나 해결될 수 있다</p> | <p>52년생 그 일도 풀리지 않는 일이다</p> <p>64년생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p> <p>76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니 검진하라</p> <p>88년생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하는 기쁨이다</p> | <p>53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p> <p>65년생 부족한 탓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마라</p> <p>77년생 물거품 될 우려</p> <p>89년생 가족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라</p> |
| <p>54년생 변수가 보이니 이를 감안하라</p> <p>66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다</p> <p>78년생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 입는다</p> <p>90년생 성급 하면 손해 난다</p> | <p>55년생 빛이 비추니 부귀영화가 나의 것이다</p> <p>67년생 기준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p> <p>79년생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보인다</p> <p>91년생 발바닥에 불난다</p> | <p>56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하다</p> <p>68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p> <p>80년생 절호의 기회란 결코 흔하지 않는 법</p> <p>92년생 친구 때문에 올 관재구설 주의해라</p> |
| <p>57년생 가족이 함께 대사를 도와하는 형상</p> <p>69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하다</p> <p>81년생 사소한 약속도 잊지 말고 지켜라</p> <p>93년생 숙명으로 받아들이자</p> | <p>58년생 금으로 힘들겠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p> <p>70년생 기준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p> <p>82년생 실수를 반복 할 수 있으니 서두리지 마라</p> <p>94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p> | <p>59년생 운때가 좋지 못하구나</p> <p>71년생 미운 사람이 있어도 표시를 내지 말라</p> <p>83년생 지금 바로 접어야 반복하지 않는다</p> <p>95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있다</p> |